

# 개인의 개방성과 정서적 소외감이 본인 및 배우자의 혼외관계 용인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 Openness and Emotional Isolation on the Toler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이원준\*, 이희진\*\*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Won-June Lee(wjlee@cs.ac.kr)\*, Hee-Jin Lee(hjlee@handong.edu)\*\*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개방성과 정서적 소외감이 배우자의 혼외관계 용인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본인의 혼외관계 용인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남녀 65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혼외관계인식과 관련요인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 분석 결과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성'과 '정서적 소외감'이 배우자의 혼외관계 불용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혼외관계 용인에 미치는 직접효과(개방성, .244\*\*\*; 정서적 소외감, .164\*\*)는 유의하였다. 둘째, '본인의 혼외관계 용인'과 '배우자 혼외관계 불용인' 간에는 강한 부적 상관(-.493\*\*)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개인의 개방성이 '배우자 혼외관계 불용인'에 미치는 효과에 '본인 혼외관계 용인'의 완전 매개효과(-.081; 하한값 -.140, 상한값 -.027), 그리고 '정서적 소외감'이 '배우자 혼외관계 용인'에 미치는 효과에 '본인의 혼외관계 용인'의 완전 매개효과(-.120; 하한값 -.189, 상한값 -.061)가 각각 입증되었다. 개인의 개방성과 정서적 소외감이 배우자의 외도에 미치는 영향은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용인 수준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이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배우자 외도문제 대처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고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혼외관계 | 개방성 | 정서적 소외감 | 배우자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acceptance of my extramarital relations, as well as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s openness and emotional isolation on the tolerance of spouse's extramarital affairs. This study is an empirical research based on data analysis obtained by surveying 655 adult men and women. The notable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while the openness and emotional isolation does not have direct effect on the tolerance of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 the direct effect of that on the acceptance of my extramarital relationship is significant. Second, the more acceptance of my extramarital relationship, the less tolerance of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 strongly. Thirdly, the full mediation effect of the acceptance of my extramarit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openness and the tolerance of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 is proved. Moreover, the full mediation effect of the acceptance of mine between the emotional isolation and the tolerance of spouse's is also significant. That is, the effect of individual openness and emotional isolation on the tolerance of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 is influenced by the acceptance of my extramarital relationship. The perception of my extramarital relationship affect the perception of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 Some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regarding extramarital relationship are discussed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 keyword : | Extramarital Relationship | Openness | Emotional Isolation | Spouse |

## I. 서론

전 세계에서 드물게 오래 동안 우리나라에서 유지되었던 간통죄의 폐지는 우리사회의 성규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성적 배타성에 기초한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규범을 이탈하는 간통행위로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간통죄 폐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하는 성적 가치라는 '사회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자율성은 인간이 태생적으로 지닌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임으로, 자신의 성행동을 자신이 결정하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이기도 하다[1].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이, 부부의 혼외관계에 대한 징벌적인 인식의 약화를 시사하는 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혼외관계를 강력하게 규제한 간통죄가 존속되었던 과거에도, 혼외관계는 우리사회의 성문화의 한 부분으로 존재했다[2-5].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사람들은 혼외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를 규명해보는 것은 혼외성 문제 대처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연구과제라 생각한다.

혼외관계에 대한 개인의 판단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가치에 대해 얼마나 인정하는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혼외관계 당사자와 자신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근간에 미디어 등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로남불'("자신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은 자신의 외도와 상대방 혹은 타인의 외도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잘 표현해준다. '내로남불' 현상은 자신의 외도행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의 혼외관계는 그 사람됨의 '기질(성향)'이 그렇다는 식의 자기방어적인 반응이다.

자신과 타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평가 뿐 만 아니라, '내로남불'의 잣대는 자신과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일반 타인과는 구별되는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평가는 내로남불 식의 평가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성적 배타성에 기초한 결혼 안에 있는 부부는 상호 성적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자신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과 일반 타인에게 적용되는 내로남불 현상이 자신과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평가에서는 훨씬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자신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수용적인(혹은 비판적인)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보다 수용적일(비판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부부간의 상대적 잣대'가 '내로남불'의 잣대와 함께, 자신의 혼외관계와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료된다.

혼외관계 인식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행연구는 '개방성'이 높은 성격적 특성을 지닌 사람이 혼외관계 가능성 높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6][7]. McGininis은 따뜻하고 개방적인 사람들도 혼외관계를 갖지만, 무디고 위축된 사람들도 혼외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7][8]. 정서적으로 소외되어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 배우자에게서 정서적인 보살핌과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배우자 이외의 이성에게 의존하려는 심리적 욕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개방성과 정서적 소외감은 자신의 혼외관계(외도) 뿐 만 아니라,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특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혼외관계(외도)에 관한 연구는 부진한 편이다. 혼외성에 대한 연구는 부부(결혼)관계 연구에서도 성문제 연구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이는 부부의 성문제가 매우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이고, 일부일처제의 결혼규범을 이탈한 행위를 탐색해야하는 심리적인 어려움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혼외관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를 남성 혹은 여성에 한정지어 조사했거나[7][9],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경우에도 남성 혹은 여성의 혼외관계 인식(허용도)을 각각 파악하였다. 그리고 자신과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을 함께 연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술한 선행연구의 내용과 한계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는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을 연구함에 있어서, 본인의 혼외행위와 배우자의 혼외행위에 대한 인식차이와 관련요인(개방성, 정서적 소외감등)을

규명해보고, 자신의 혼외행위와 배우자의 혼외행위에 대한 인식간의 상호관련성 등을 함께 밝혀보고자 한다. 실증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토대로, 부부의 혼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혼외성 문제 대처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찾아 논의해보고자 한다.

## II. 문헌검토

### 1. 혼외관계 인식

혼외관계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혼외개념에 내용 및 범위에 관해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쟁점은 육체적, 정서적 관계를 모두 포함할 것인지, 육체적 관계만 초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쟁점은 배우자의 허락유무에 관한 것이다. 천주현과 구명숙은 '혼외관계(extramarital relationship)을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육체적 혼외관계와 배우자 허락 없이 이루어진 성행위에 한정되었다[10][11].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혼외관계의 통상적인 개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김예숙과 남은주는 혼외관계를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다른 이성과 육체적, 정서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정서적 관계까지 포함된 개념을 제시하였다[2][13]. 전술한 두 개념은 공통적으로 '배우자의 허락(혹은 동의)없이'가 전제되었는데, 이영화와 이영숙은 혼외관계를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허락 유무를 떠나,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긴밀한 감정적 교류 및 성적 관련 교류를 맺는 것"으로 보다 확장된 개념을 제시하였다[7].

배우자의 외도에 남녀 모두 분노하지만, 성적(육체적) 외도보다 오히려 정서적 외도로 인해 받는 상처가 더 크고[14], 정서적인 혼외관계와 성적 외도와는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15][16], 본 연구에서는 혼외관계 개념을 앞서 소개한 이영화와 이영숙이 제시한 포괄적인 내용의 개념을 채택하고자 한다[7].

### 2. 개방성, 정서적 소외감이 혼외인식에 미치는 영향

Fitzgerald는 개방성(openness)을 "새롭고 평범하지 않는 경험들을 불안감 없이 받아들이는 기본적 성향"이라고 설명하였다[17]. 개방성향이 높을 경우,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화 정제감을 보이고,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이 보다 용이하다고 한다[18][19]. 선행연구자는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창의적이고 활발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방성이 약한 사람보다 혼외관계에 대해 더 호기심을 갖기 쉬워 혼외관계 경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7].

'정서적 소외감(emotional isolation)은 "현재 자신의 사회망(social network)에서 친밀성 및 애착감의 결여"로 정의할 수 있다[20]. 정서적 소외감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있는 사회관계의 결핍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위축된 느낌이다. 애착감(attachment)은 "안전함(safety)과 보장감(security)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이다[20]. 정서적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개방성이 높은 사람과 달리,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자하는 도전 욕구가 약하여, 혼외관계와 같이 위험부담(risk-taking)이 따르는 행동에 소극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동시에 또 다른 추론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정서적 소외감은 의미있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relatedness)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결핍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대상을 혼외 밖에서라도 찾고 싶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서적 소외감과 개방성이 부적 상관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실증연구를 시도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 3.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과, 배우자의 혼외관계의 인식과의 관계

혼외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혼외관계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평가의 차이가 있음을 '내로남불' 현상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내로남불'은 근간에 정치권에서 상대방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는 핵심 키워드로 미디어 등에서 자주 회자되는 표현이다. 혼외관계에 이 현상을 작용하여 본다면, 자신과 관련성이 없는 타인들의 혼외관계에 대한 판단과, 자신 혹은 배우

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판단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지닐 것으로 예측된다. '내로남불'적 관점에서 보면, 본인의 외도에 대해서 용인적인 사람은 본인 스스로의 외도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서, 자신의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관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 즉, 본인의 외도에 대한 판단(평가)과 배우자 외도에 대한 판단에 공평한 잣대를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연화 귀인이론은 '내로남불'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Griffiths이 제시한 '유연한 귀인'(flexible attribution)의 개념은 성공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귀인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외부적 영향에 귀인하는 경향이다[21]. 이러한 왜곡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의 원인은 '상황'에 근거하여 추론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타인의 행동의 원인은 평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기질)과 관련하여 추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22][23]. 귀인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비해서 자신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보다 수용적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자신의 혼외관계에 대해 좀 더 관대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자신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논의를 종합해볼 때, '개방성' 및 '정서적 소외감'은 '본인의 혼외관계 인식'과 '배우자의 혼외관계 인식'에 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배우자의 혼외관계인식'은 '본인의 혼외관계 인식'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과 정서적 소외감이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는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이라는 매개요인(mediator)에 의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볼 수 있다.

#### 4. 성별 및 결혼상태와 혼외관계 인식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행의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혼외관계에 대해 보다 더 수용적이고 혼외관계를 실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16]. 그러므로 본 연구모형분석에서 '성별'이 혼외관계 인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별'과 함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서 미혼자와 기혼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결혼상태'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아래 [그림 1]은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도식화하여 제시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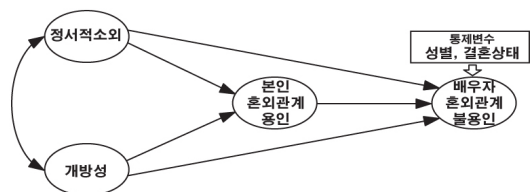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도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의 혼외관계'와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 얼마만큼 용인(혹은 불용인)적인가?
2. 본인의 혼외관계 인식은 배우자의 혼외관계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개인의 '개방성' 및 '정서적 소외감'은 '배우자의 혼외관계인식'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4. '본인의 혼외관계인식'은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개방성'과 '정서적 소외감'이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매개(mediation)하는가?

#### 2. 연구대상 및 설문조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인터넷 서베이(survey) 업체의 유료 패널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본 설문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전국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다. 조사대상자(655명)는 남성이 329명이고 여성 326명이다. 기혼자(이혼, 별거 등 결혼경험자 모두 포함)가 318명이고 미혼(싱글포함)이 337명이다. 연령대를 보면, 30대(308명)가 4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0대(28.1%, 184명), 20대(13.3%, 87명), 50대(9.6%, 63명) 그리고 60대 이상(13명, 2%) 순이다. 조사응답자들의 약 80%(533명)가 대졸이상으로 전

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편이다. 설문조사 및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에 걸쳐서 약 2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 3.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에 대한 정보는 아래 [표 1]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다.

표 1. 주요변수들의 구성내용 및 신뢰도

변수 구분	척도명	문항 수	척도문항 내용 (Cronbach's $\alpha$ )
종속	배우자 혼외 관계 불용인	3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과 혼외 관계 (정서형, 성격형, 정서/성적 혼합형 등)를 갖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정도(5점 척도)[16][24] Cronbach's $\alpha$ 값=.766
독립	개방성	5	사고방식, 감정, 행동, 미적정서, 환상 등의 하위구성소를 토대로 개방성을 평가(5점 척도)[25] Cronbach's $\alpha$ 값=.634
	정서적 소외	4	Vincenzi & Grabosky(1987) 척도에서 정서적 소외관련 문항을 선정하여 재구성(5점 척도)[20] Cronbach's $\alpha$ 값=.724
매개	본인 혼외 관계 용인	3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의 혼외관계 (정서형, 성격형, 정서/성적 혼합형등)를 수용하는 정도 (5점 척도)[16][24] Cronbach's $\alpha$ 값=.846
통제	성별	1	남성=1, 여성=0(이항 변수)
	결혼 상태	1	미혼=0, 기혼(동거모함)=1(이항변수)

### 4. 분석방법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토대로 본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분석에는 AMOS 23과 SPSS 23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절대 적합지수인 RMSEA와 상대적합지수인 CFI와 TLI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최근 국내연구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Shrout와 Bolger가 제시한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 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26][27].

## IV. 분석결과

### 1. 주요변수들의 특성

주요 척도들은 모두 5점 척도이다. 각 척도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배우자혼외관계

불용인'(M=4.2687)을 보면, 척도 점수가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불용인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척도점수 4점을 초과하고 있다[표 2].

표 2. 주요변수들의 특성

주요척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배우자 혼외관계불용인	4.2687	.8012	-1.25	1.450
개방성	2.8895	.6742	.089	-.077
정서적 소외	2.8683	.7758	.287	-.201
본인혼외관계 용인	2.1842	1.0660	.586	-.675

전체응답자(655명) 중에 약 74.8%(591명)가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표명하였다[표 3]. 매개변수인 '본인 혼외관계 용인' 척도의 평균값(M=2.1842)은 본인의 혼외관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 있는 점수(2점 이하)보다 약간 높은 점수이다[표 2].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응답자는 약 8.7%(57명)이었다[표 3].

척도의 평균값 및 빈도분석결과를 보면, 본인의 외도에 비해서, 배우자의 외도를 더 용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독립변수인 개방성(2.8895)과 정서적 소외(2.8683) 수준은 모두 척도의 중간값(3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약 절반(50.5%, 331명)은 개방성이 보통 수준보다 낮았다. 개방성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척도점수 4점 이상은 약 6.3%(44명) 정도이다.

표 3. 주요변수들의 빈도

주요척도	전체(655명)	
	점수	빈도(%)
배우자 혼외관계 불용인 (1-5점 척도)	1점-2점 미만	7명(1.1%)
	2점-3점 미만	28명(4.3%)
	3점-4점 미만	129명(19.7%)
	4점-5점미만	268명(40.8%)
	5점	223명(34.0%)
개방성 (1-5점 척도)	1점-2점 미만	42명(6.4%)
	2점-3점 미만	289명(44.1%)
	3점-4점 미만	280명(42.7%)
	4점-5점미만	42명(6.5%)
	5점	2명(0.3%)
정서적 소외감 (1-5점 척도)	1점-2점 미만	56명(8.6%)
	2점-3점 미만	297명(45.3%)
	3점-4점 미만	228명(34.8%)
	4점-5점미만	68명(10.4%)

본인 혼외관계 용인 (1-5점 척도)	5점	6명(0.9%)
	1점-2점 미만	283명(43.2%)
	2점-3점 미만	178명(27.2%)
	3점-4점 미만	137명(20.9%)
	4점-5점미만	49명(7.5%)
	5점	8명(1.2%)

정서적 소외감 수준이 비교적 낮은 응답자들(54.9%, 353명)이 응답자들의 절반을 넘었고, 정서적 소외감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는 척도점수 4점 이상은 약 11.3%(74명)이었다.

### 2.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진단

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관계수들의 절댓값 범위(.393 ~ -.225)가 높지 않아 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과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간의 상관관계 계수(.393)가 가장 높았다.

### 3.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 검증결과, 각 측정지표들(indicators)의 왜도는 -2.038-.820로 절대값 3을 넘지 않았고, 첨도도 -.883-4.000으로 절대값 10을 넘지 않아 일변량 정규성이 인정되었다.

### 4.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모든 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이 유의하였고, 모형의 적합도( $\chi^2=212.693$ ,  $df=84$ ,  $p.000$ ,  $TLI=.940$ ,  $CFI=.952$ ,  $RMSEA=.048$ )도 기준을 충족하였다[표 4].

표 4.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N=655명)

잠재 변인	측정 변인	표준화 추정치	비표준 추정치	표준 오차	C.R	P	SMC
배우자 혼외관계 불용인	D1	.573	1.000				.329
	D2	.825	1.183	.086	13.791	***	.680
	D3	.830	1.168	.085	13.83	***	.689
개방성	B14	.594	1.742	.237	7.336	***	.353
	B15	.557	1.574	.218	7.208	***	.311
	B16	.444	1.178	.179	6.572	***	.197
	B17	.525	1.604	.227	7.062	***	.275
	B18	.408	1.000				.166

정서적 소외감	B10	.363	1.000				.132
	B11	.646	1.757	.219	8.010	***	.418
	B12	.826	2.078	.250	8.301	***	.682
	B13	.716	1.880	.229	8.208	***	.513
본인 혼외관계 용인	D4	.705	1.000				.496
	D5	.879	1.258	.065	19.263	***	.773
	D6	.839	1.143	.060	19.016	***	.704

\*\*\*p<.001, \*\*p<.01, \*p<.05

### 5. 모형분석

중속변수 '배우자 혼외관계 불용인'에 성별과 결혼여부에 의한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두변수를 통제 후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chi^2=377.931$ ,  $df=113$ ,  $p.000$ ,  $CFI=.907$ ,  $TLI=.888$ ,  $RMSEA=.060$ )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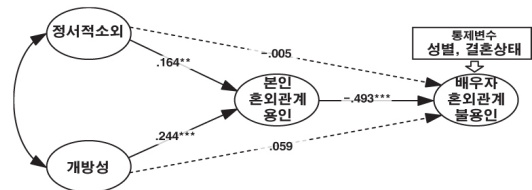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분석

'정서적 소외→ 배우자 혼외관계 불용인'경로(-.005)와 '개방성→ 배우자 혼외관계 불용인'(-.059)경로(-.005), 이 두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용인하지 않는 정도는 개인의 개방성이나 정서적 소외감 상태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서적 소외→본인의 혼외관계 용인'(.164\*\*)경로와 '개방성→ 배우자 혼외관계 불용인'(.244\*\*\*), 이 두 경로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개인의 정서적 소외와 개방성은 자신의 혼외관계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본인 혼외관계 용인→ 배우자 혼외관계 불용인'(-.493\*\*\*) 경로는 유의하였다.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불용인 정도는 자신의 혼외관계를 얼마나 용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정서적 소외→(본인 혼외관계 용인)→ 배우자 혼외관계 불용인'(.081; Lo. -.140, Hi. -.027)경로와, '개

표 5. 모형 경로분석 (N=655명)

직접효과	표준화 추정치	비표준추정치	표준오차	C.R / P.
정서적 소외 → 본인혼외관계용인	.164	.360	.114	3.165**
개방성 → 본인혼외관계용인	.244	.558	.138	4.036***
본인혼외관계용인 → 배우자혼외관계 불용인	-.493	-.360	.042	-8.506***
정서적 소외 → 배우자혼외관계 불용인	-.005	-.009	.076	-.113
개방성 → 배우자혼외관계 불용인	.059	.099	.091	1.092
결혼상태 → 배우자혼외관계 불용인	-.064	.081	.050	-1.632
성별 → 배우자혼외관계 불용인	-.054	-.068	.050	-1.373
정서적 소외 ↔ 개방성 (Covariance)	.039(.010), C.R = 3.827***			
정서적 소외 ↔ 개방성 (Correlations)	.262			
간접효과	표준화 추정치	비표준추정치	신뢰구간	
정서적 소외→(본인혼외관계용인) →배우자혼외관계불용인	-.081	-.130	Lo: -.140 Hi: -.027	
개방성→(본인혼외관계용인) →배우자혼외관계불용인	-.120	-.201	Lo: -.189 Hi: -.061	
모형의 적합도	$\chi^2=37931$ $df=113$ $p=.000$ $CFI=.907$ $TLI=.888$ $RMSEA=.060$			

\*\*\*p<.001, \*\*p<.01, \*p<.05

방성→(본인 혼외관계 용인)→ 배우자 혼외관계 불용인(.120; Lo. -.189, Hi. -.061)경로, 이 두 경로는 모두 유의하여, 이 두 경로에서 '본인 혼외관계 용인'의 완전 매개효과(full mediation effect)가 입증되었다.

개인의 정서적 소외 및 개방성이 비록 자신의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얼마나 용인하지 않느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본인의 혼외관계 불용인이 매개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개인의 정서적 소외 및 개방성은 간접적으로 배우자 혼외관계 불용인에 유의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인의 혼외관계 요인이 배우자의 혼외관계 불용인에 미치는 직접효과(-.493)가 상당히 강하였다. '본인 혼외관계 용인 → 배우자 혼외관계 불용인'(-.493\*\*\*) 경로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다른 네 경로들과 비교해볼 때, 훨씬 더 그 효과가 강함은 아래 [표 6]에서 제시한 경로차이검증(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본인의 혼외관계를 얼마만큼 용인할 수 있는지가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용인 혹은 불용인 여부를 결정짓는데 매우 강력한 예측변인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표 6. 모형 내 경로계수 차이 검증

변수 (5점척도)	경로1	경로2	경로3	경로4	경로5
경로1	.000				
경로2	.989	.000			
경로3	<b>-6.031</b>	<b>-6.405</b>	.000		
경로4	<b>-2.785</b>	<b>-3.571</b>	<b>3.858</b>	.000	
경로5	-1.770	<b>-2.946</b>	<b>4.171</b>	.812	.000

경로1: 정서적 소외 → 본인혼외관계용인  
 경로2: 개방성 → 본인혼외관계용인  
 경로3: 본인혼외관계용인 → 배우자혼외관계 불용인  
 경로4: 정서적 소외 → 배우자혼외관계 불용인  
 경로5: 개방성 → 배우자혼외관계 불용인

## V. 결론 및 제언

자료분석 결과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토대로 결론과 실천적 함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혼외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1). 그러나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혼외관계에 비교적 용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연구문제 1). 응답자들 중에 약 8.7%(57명)는 본인의 혼외관계를 용인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서 자신의 혼외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혼외관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는 부부의 결혼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둘째, 본인 혼외관계 용인(M=2.1842)과 '배우자의 혼외관계 불용인'(M=4.2687) 수준을 살펴본 결과, 본인의 혼외관계에 비해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불용인하는 경향이 더 뚜렷하였다(연구문제 1). 자신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고,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비판적이라는 것이다. 자신과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평가에서도 여전히 '내로남불' 잣대에 의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과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평가에서 내로남불 현상이 강한 부부의 경우, 혼외 성 문제에 직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부부는 혼외 성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부부문제에 대하여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실천개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인터뷰 시 체계적인 면담과 함께, 부부간의 성공평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서, 혼외 성관계에 대한 부부간의 인식차이를 점검하고, 성공평성과 공감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은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후속연구를 기대해본다.

부가하여, 본인의 혼외관계에 비해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 더 비판적인 경향이 있지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인의 혼외관계 용인이 배우자 혼외관계 불용인에 미치는 강한 부적 직접효과(-.493)를 인식할 때, 무엇보다도 자신의 혼외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립이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선행과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부부의 성문제 대처는 혼외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혼외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만이 실천목표가 될 수는 없다. 혼외성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적인지(혹은 비판적인지)에 대한 개인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부부간의 인식차이에 초점을 두고, 혼외성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개인이 '개방성' 혹은 '정서적 소외감'이 자신의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용인 또는 불용인하는 데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연구문제 3). 그러나 개인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소외감'은,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개방성이 높을수록, 혹은 정서적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자신의 혼외관계를 더 용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방성이 혼외관계 용인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이영화 이영숙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7].

개인의 '개방성' 및 '정서적 소외감'이 비록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배우자 혼외관계 불용인')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치지 않지만, 본인의 혼외관계 인식('본인 혼외관계 용인')이 매개 작용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 '개방성'과 '정서적 소외감'은 간접적으로 배우자 혼외관계 인식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연구문제 4). 따라서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얼마나 용인적(혹은 불용인적)인지는 개인의 '정서적 소외감' 상태와 '개방성' 수준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혼외관계 인식에 대한 개인의 성찰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의 '개방성'과 '정서적 소외감'을 평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전 과제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혼외관계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을 파악함에 있어서, 평가대상(자신, 배우자)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므로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요인들을 비교분석해 볼 수 있었다. 이는 평가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이 수행된 많은 선행연구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한 연구의 진전을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적지 않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최근 자료(data)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명백한 한계점이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 및 '혼외관계' 등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 두 변수가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조절효과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E. L. Deci and R. M. Ryan,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Vol.11, No.4, pp.227-268, 2000.
- [2] 남은주, *남녀의 외도원인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3] 양다진, 조희선, "기혼남녀의 혼외관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제8권, pp.51-76, 2005.
- [4] 이영숙, 이영화,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미치는 혼외성경험과 성별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7권, 제4호, pp.631-638, 2008.
- [5] 함인희, "한국가족 내 부부간 성관계에 투영된 젠더 격차(Gender Gap)," *여성학논집*, 제29권, pp.175-210, 2012.
- [6]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 *혼외관계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0.
- [7] 이영화, 이영숙,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과 관련변인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3호, pp.523-533, 2007.
- [8] T. McGinnis, *More than just a friend: The joys and disappointments of extramarital affairs*. Prentice Hall, Inc, 1981.
- [9] 공미혜, "혼외관계를 경험한 기혼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7권, 제2호, pp.1-20, 2002.
- [10] 천주현, *성별에 따른 혼외성관계 허용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11] 구명숙, "기혼여성의 혼외관계의 경험과 성적 주체성," *여성연구논집*, 제13권, pp.187-189, 2002.
-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13] 김예숙, *외도, 결혼제도의그림자인가*, 형성사, 1995.
- [14] M. C. Green and J. Sabini, "Gender, socioeconomic status, age, and jealousy: emotional responses to infidelity in a national sample," *Emotion*, Vol.6, No.2, pp.330-334, 2006.
- [15] W. F. Harley, *His needs, her needs: Building an affair-proof marriage*, Revell, 2011.
- [16] 신성자, "성역할 고정관념과 개방결혼에 대한 인식이 성적외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혼외관계 수용성의 매개효과와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3호, pp.199-211, 2017.
- [17] E. T. Fitzgerald, "Measurement of openness to experience: A study of regression in the service of the eg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29, pp.655-664, 1966.
- [18] S. K. Whitbourne, "Openness to experience, identity flexibility, and life change in adul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0, No.1, pp.163-168, 1986.
- [19] 김애순, "중년위기가(3):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13권, 제2호, pp.1-14, 1993.
- [20] H. Vincenzi and F. Grabosky, "Measuring the 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2, No.2, pp.257-270, 1987.
- [21] M. D. Griffiths, "The cognitive psychology of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Vol.6, No.1, pp.31-64, 1994.
- [22] 박재진, "기본적 귀인오류현상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의 조절효과: 유명인의 제품 보증 차원에서의 검증," *한국언론학보*, 제5권, 제4호, pp.293-306, 2012.
- [23] D. T. Gulbert and P. S. Maline, "The correspondence bias," *Psychological Bulletin*, Vol.117, No.1, pp.21-38, 1995.
- [24] A. P. Thompson, "Emotional and sexual components of extramarit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6, No.1, pp.35-42, 1984.
- [25] P. T. Costa and R. R. McCrae, *Neo PI/FFI manual supplement*,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89.
- [26] 이희진, "한국에 대한 경쟁의식과 문화유입수용성이 중국인들의 자국방어적 대응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의 매개효과와 환류효과도의 조절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호, pp.277-288, 2018.
- [27] P. E. Shrout and N. Bolger, "Mediations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Vol.7, No.4, pp.422-445, 2002.

저 자 소 개

이 원 준(Won-June Lee)

정회원



- 2010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13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가족복지

이 희 진(Hee-Jin Lee)

정회원



- 2011년 5월 :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석사)
- 2016년 2월 :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미디어영향 연구